

# 국정 문법교과서의 피동법 기술에 대한 고찰\*

왕문용(강원대)

## <차례>

- I. 서론
- II. 3차 교육과정시기의 피동
- III. 4차-7차 교육과정시기의 피동
- IV. 피동의 정의와 형식 문제
- V. 결론

## I. 서론

국정 문법교과서 시기는 문법교육 변천사에서 나름대로 큰 의의를 지닌다. 건국 이후 문법교육을 통일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 이 시기의 국정 문법교과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1)</sup>

해방 이후 건국기에서부터 문법용어나 내용의 설명에서, 문법교육의 내용을 다듬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 학교문법 교육을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1949년 7월에 292개의 문법 용어를 제정하였는데, 고유어계와 한자어계의 용어를 다 인정하되 한 책에서 섞어 쓰는 것을 금지하게 하였으며 그 후 검인정 제도를 시행하게 되고 제1차 문법교과서 검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때에 중등에서 다섯 종류의 문법서가 검정을 통과하게 된다. 이것을 첫 번째의 학교

\* 논문을 세세히 읽고 의견을 제시하여 준 심사위원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그러나 이 논문의 모든 책임은 필자에게 있음을 밝힌다.

1) '국정 문법교과서 시기'란 국가 기관이 저작권자로, 단일본으로 문법교과서를 간행한 4차 교육과정 이후의 시기를 지칭하기 위한 잠정적인 용어이다.

문법 통일 시도라 할 만하다.

1955년에 제1차 교육과정이 마련되고 이듬해부터 제2차 검인정 교과서가 간행되어, 중학교 8종 고등학교 6종의 문법 교과서가 검정되었다. 이에 따라 문법 교육이 본격화되었으며 교육적 필요에서 문법 용어와 체계의 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 일선 교단에서 입시와 관련된 문법교육의 혼선이 문제되어 문법 통일의 요구가 거세졌다.

1961년 정권이 바뀌면서 문법교육 통일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그 해 말 문법교육 통일 논의를 시작하여 1962년 3월 학교문법 통일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명사식의 명칭 통일이 실현될 듯하자 말본파의 반발로 1963년 봄, 16인의 전문위원회가 구성되고 5월에는 9품사 체계, 252개의 문법 용어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후 논란이 한동안 계속되었는데 이것이 1961년-1966년 사이의 문법 논쟁이다.<sup>2)</sup>

1963년에 제2차 교육과정이 공포되었으며 제3차 문법 교과서 검정으로 1966년에 중학교 7종, 1967년에 9종, 합하여 총 16종의 중등문법 교재가 검정되었고 고등문법은 1968년에 13종의 교과서가 검정되었다.

1973년 3차 중학교 교육과정이 공포되었고 1974년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 4차 문법 교과서 검정이 1979년에 이루어져 고등학교에서만 다섯 종의 검인정 문법 교과서가 등장한다.

이후 4차 교육과정이 1981년 마련되고 문법교육의 통일을 위하여 국정 교과서로 문법교과서가 마련되게 된다. 당시 문교부에서 1982년 성균관대 부설 대동문화연구원에 위촉 ‘학교문법 체계 통일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내용에는 ‘학교문법의 문제점, 문법의 기본 방향, 문법의 범위, 앞으로의 문법교육에 대한 방향 설정, 개발할 교과서의 대체적인 틀’이 포함되었고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1983년에 교과서 개발을 위한 연구진과 집필진이 구성되어 검토본을 집필하였다. 이후 교사와 학자들이 검토본에 대한 연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민수(1987)나 정준섭(1994)이 참고 된다.

구 검토 과정을 거쳐 1985년에 단일본을 내어놓았다. 이에 의하여 비로소 문법교육의 용어나 내용의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렇게 마련된 국정 문법교과서 시기의 문법교육 내용을 살피는 것은 곧 표준적인 학교문법의 내용을 살피는 것과 같다. 국정 문법교과서 시기는 4차 교육과정시기에서 시작하여 7차 교육과정시기인 현재까지 계속되므로 4차-7차 교육과정 시기의 문법교과서가 본고의 연구 대상이나 이러한 내용이 확정되기까지의 배경을 고찰하기 위하여 3차 교육과정 시기의 검인정 교과서도 검토하기로 한다. 시기적으로 20 여년에 해당되고, 그 사이의 교육 내용의 변천도 많이 발생하였다.

이곳에서는 피동의 정의와 표현 형식을 중심으로 그 교육 내용의 변천을 살피고 바람직한 교육 내용 정립의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곧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하는 문법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제3차 교육과정 시기 : 5종의 고등학교 검인정 문법교과서

제4차 교육과정 시기 :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편찬 ‘문법’

제5차 교육과정 시기 :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편찬 ‘문법’

제6차 교육과정 시기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편찬 ‘문법’

제7차 교육과정 시기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편찬 ‘문법’

국어 문법의 피동은 전통문법에서도 많이 논의되었으나 1960년대 변형생성문법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초기의 문법서인 대한문전에서 피동사의 개념을 설정하고 ‘때리다-맞다’ 같은 형식이나 ‘-어지다’ 구성을 피동사로 다루고 있고 최현배(1937)에 와서는 세 가지의 피동 유형을 설정하게 된다. 이후 이익섭, 임홍빈(1983), 서정수(1994) 등의 문법서에서 피동을 다루게 되고, 그 외에 많은 전공 논문이나 배희임(1986), 우인혜(1977), 안중환(2002) 같은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한 전공서적도 출간되었다.<sup>3)</sup>

그러나 국어의 피동의 논의는 논란이 많아서 최현배(1937)과 같은 논의가

있는 반면에 임홍빈(1978), 이익섭, 임홍빈(1983)처럼 폭을 좁게 잡아 접미사 ‘-이-, -히-, -리-, -기-’ 등에 의한 피동으로 피동을 제한한 논의도 있으며 서정수(1994)처럼 ‘진피동문, 피동성표현’으로 구분하여 ‘-이-’ 등에 의한 것은 진피동문 나머지는 피동성표현으로 나누어서 피동의 논의에 같이 포함시키는 절충적인 방법을 택한 논의도 있다. 서정수(1994)에서는 ‘-이-’ 등이 파생접사가 아니라 굴절접사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를 이어가기도 한다.

## II. 3차 교육과정 시기의 피동

이시기의 문법교과서는 1979년에 5종의 교과서가 검인정으로 간행되었다. 교과서 표제는 ‘문법’이었는데 김민수(1979, 어문각), 이길록, 이철수(1979, 삼화출판사), 이웅백, 안병희(1979, 보진재), 허웅(1979, 과학사), 김완진, 이병근(1979, 박영사)가 그것이다. 이 시기의 교과서에서는 저자에 따라 독특한 피동의 설명을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김민수(1979)에서는 ‘피동과 사동’이라는 별도의 절로 ‘요소의 호응’에서 피동을 다루었다. 다른 교과서가 형태론 영역인 품사에서 피동을 다루는데 비하여 통사론 영역에서 피동을 논의하고 있다. 피동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 (1) ㄱ. 아이가 과자를 먹는다.  
       ㄴ. 과자가 아이에게 먹힌다.

(1ㄱ)의 ‘먹는다’는 행위자 ‘아이’가 제 힘으로 하는 동작인데, (1ㄴ)의 ‘먹힌다’는 행위자 ‘아이’가 그 움직임을 받는 동작 곧 피동이며, (1ㄱ)은 행위자가, (1ㄴ)은 대상물이 한 행동으로 달리 표현되었으나, 행위자 ‘아이’가 하는 실제

---

3) 학교문법 연구서인 남기심, 고영근(1985), 이관규(1999)에서도 문법 교과서의 내용을 확충하여 피동을 소개하고 있다.

의 행동은 같다고 하였다. 이처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화자의 관점을 달리 한 행동을 동작태(動作態)라 하였고 이에 피동과 사동이 포함된다.

피동을 설명하는 과정에, 능동사와 피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피동사는 피동접미사 ‘-이-, -히-, -리-, -기-, -되-, -당하-, -받-’ 등에 의하여 파생됨을 밝히고 있다. ‘걱정되다’의 ‘-되-’, ‘감금당하다, 주목받다’ 등의 ‘-당하-, -받-’도 다른 접사와 같이 피동접미사로 다루고 있다. 이에 대조되는 ‘먹-, 걱정하-, 감금하-, 주목하-’ 등의 동사가 능동사가 된다.

의존용언 ‘지다’에 의하여 피동이 이루어짐도 언급하고 있다. 피동사가 능동사에서 파생된 것처럼 피동은 능동에서 변형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피동의 항목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게 되다’의 ‘되다’도 피동조동사로 다루고 있다.

이길록, 이철수(1979)에서는 ‘품사의 특성과 기능’이라는 장의 하위 체계에 ‘조동사의 종류’와 ‘동사’의 하위 유형에서 사동과 같이 피동을 다루고 있다.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 ● 조동사의 종류

(가) 피동 조동사 : 되다(가게 되다), 지다(이루어지다)

(나) 사동 조동사 : 하다, 만들다

● 동사의 하위 유형으로

사동사 : 먹이다 류, 공부시키다 류

피동사 : 잡히다 류, 임명되다, 침범당하다, 존경받다 류

피동은 ‘범이 포수에게 잡히다.’처럼 본래 목적어가 되어야 할 말이 주어가 될 때에 그 전의 주어(포수)로부터 받는 동작이라 하고 이렇게 쓰이는 법을 피동법이라 하였다. 이 피동법에 쓰이는 동사를 피동사하 하고 ‘-이-, -히-’ 게 이외에 ‘하다’ 동사의 어근에는 ‘되다, 당하다, 받다’ 등의 접미사가 붙어서 피동사가 파생되기도 하고 또 피동은 피동 조동사 ‘지다’가 붙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통사론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품사론에서 다

루고 있는 셈이다.

이응백, 안병희(1979)에서는 동사로써 나타낸 동작이나 행동과, 그 동작이나 행동에 관여하는 주체나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서 동사는 능동사와 피동사 및 사동사로 나뉜다고 하였다.

‘흙이나 돌이 모두 눈에 덮인 산길을 우리는 올랐다.’처럼 ‘-이-, -히-, -리-, -기-’가 연결되거나 ‘새겨지다, 시작되다’처럼 동사 ‘지다, 되다’(받다, 당하다)가 합성되어, 어떤 동작이나 행동이 주어으로써 표현된 인물이나 대상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동작이나 행동을 입어서 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피동 또는 피동사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이들 접미사나 ‘지다, 되다’가 합성되기 전의 동사를 능동, 또는 능동사라 한다. ‘-게 되다’의 경우는 ‘되다’를 피동조동사로 처리한다. 피동을 동사의 하위 영역으로 품사론에서 다루고 있다.

허웅(1979)에서는 낱말의 파생에서 ‘사동이나 피동을 나타내는 형태소 ‘-이-, -히-, -리-, -기-’ 등’에 의하여 새로운 용언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어법에서 다루고 용언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 조동사의 설명에서는 ‘하다’를 사동의 의미를 갖는 조동사로 보았으나(그 사람도 거기에 가게 하여라.) ‘되다’는 조동사이지만 ‘나는 이제 밥을 먹게 되었다.’에서처럼 ‘가능’의 의미를 갖는 조동사로 보았다. 피동을 매우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완진, 이병근(1979)에서는 능동사, 피동사가 아닌 동사의 능동형, 피동형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피동을 설명하고 있다.<sup>4)</sup> 주어가 실질적인 행동주임을 보이는 동사 형태를 능동형이라 하며 이와 반대로 주어가 어떤 동작을 입는 존재임을 나타내는데 쓰이는 동사 형태를 피동형이라 하였다.

피동형은 피동보조어간에 의하여 만들어진다고 보고 일부의 타동사 곧 명사에 ‘하다, 시키다’가 붙어 이루어진 동사들에 있어서는 그 대신에 ‘받다, 되

4) 사동의 경우는 물론 사역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 당하다'를 붙여 피동형을 만든다고 하였다. 또 일부의 동사들은 그 부사형에 '지다'를 붙여 피동형을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히-, -리-, -기-’등을 보조어간으로 처리한 것에서 피동을 근본적으로는 피동사 파생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최현배(1937)에 이어지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크게 대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5종 문법교과서의 피동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김인정교과서의 피동

	김민수	이길록,이철수	이웅백,안병희	허웅	김완진,이병근
범위	보통	보통	보통	좁음	좁음
피동사	○	○	○		
피동형					○
품사론에서 다룸		○	○		○
문장론에서 다룸	○				
조어법에서 다룸				○	

피동의 유형에서 그 범위가 학교문법에 많은 영향을 끼친 최현배의 ‘우리 말본’과 비교하여 김민수(1979), 이길록, 이철수(1979), 이웅백, 안병희(1979)는 그 범위가 같아서 ‘보통’이라고 하였다.<sup>5)</sup> 허웅(1979)는 매우 좁게 조어법에서 ‘-이-’ 등을 다루었으며 김완진, 이병근(1979)에서는 보조용언에서 ‘되다’를 다루지 않고 있다. 이렇게 김인정교과서의 피동은 유형의 범위에서 주로 최현배(1937)을 이어받았으나 피동을 이루는 용언을 피동사로 설명하여 최현배(1937)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현배(1937:568)에서는 ‘-이-’ 계와 명사와 통합되는 ‘-되다, -당하다, -받다’ 등을 보조어간이라 하여 별도로 사전

5) 최현배(1937)에서는 예문 (10)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 ‘입음법’을 설명하면서 ‘-게 되다’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보조동사에서는 피동보조동사로 ‘-게 되다’의 ‘되다’를 ‘-어 지다’와 함께 설명하고 있어 ‘되다’를 피동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 올리지 않는 방법을 취하여 ‘피동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민수(1979)에서는 피동을 통사론 영역에서 다루었고 허웅(1079)에서는 ‘날말의 뒹뒹이’라는 조어법에서 간략히 다루고 있음이 특이하다. 나머지 교과서에서는 품사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김완진, 이병근(1979)에서는 ‘피동형’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사랑받다’의 ‘받다’ 등을 이웅백, 안병희(1979)에서는 합성어구성으로 보는데 김민수(1979), 이길록, 이철수(1979)에서는 접사로 처리하고 있어 파생어구성으로 보고 있음도 특이하다. 이웅백, 안병희(1979)에서는 ‘새겨지다’도 합성어로 처리하고 있어 ‘지다’의 처리가 다른 교과서와 대조된다.

### Ⅲ. 4차-7차 교육과정시기의 피동

4차, 5차 교육과정시기의 문법교과서는 두 차례 모두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학연구원에서 편찬되었는데 피동의 경우 5차의 내용이 4차와 같아서 바뀐 내용이 없다. 우선 피동이 ‘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라는 통사론 영역에서 ‘사동과 피동’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이 눈에 띄인다. 그 소제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 피동    피동과 능동
- 피동문되기
- 피동문의 특징

소제목에서 알 수 있듯 피동을 ‘피동과 능동, 피동문되기, 피동문의 특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피동과 능동’에서는 ‘업히다’ 같은 피동사가 남의 행동을 입어서 행해지는 동작을 나타낸다면 ‘업다’ 같은 능동사는 제 힘으로 행하는 동작을 나타내고 하였다. 곧 ‘업히다’가 피동을 나타내고 ‘업다’가 능동을 나타낸다.



‘피동문되기’에서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에서 주어로, 능동문의 주어는 부사어로 실현됨을 밝히고 피동접미사에 의한 피동과 ‘-어’에 보조동사 ‘지다’가 어울린 피동 형성법도 있음을 설명하였다.

피동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능동문에 대하여 피동문이 대응되지 않거나 피동문에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도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 (4) ㄱ. 영수가 꾸중을 들었다.  
       ㄴ. \*꾸중이 영수에게 들리었다.
- (5) ㄱ. 반장 선거에서 영호가 철수를 밀었다.  
       ㄴ. \*반장 선거에서 철수가 영호에게 밀리었다.

‘피동문의 특징’에서는 능동문의 주어가 무정명사일 때에 피동문에서는 ‘에 게’대신 ‘에’가 쓰임을 (6)처럼 설명하고 있다.

- (6) ㄱ. 폭풍이 온 마을을 휩쓸었다.  
       ㄴ. 온 마을이 폭풍에 휩쓸렸다.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어떤 경우에는 ‘에 의해’가 더 자연스러움도 설명하고 있다.

3차 시기의 문법교과서에 비하여 매우 체계적으로 능동문과 관련하여 피동을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피동문되기’라는 작은 항목을 설정하고 능동문과 피동문을 관련시켜 설명한 부분이 그 한 예이다. 그러나 ‘되다, 받다, 당하다’ 등의 피동은 제외하여 폭을 좁혀 피동을 엄격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차 교육과정 시기의 문법교과서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위탁하여 편찬되었다. 5차 시기의 문법교과서에 비하여 화용론 단원과 ‘바른 언어생활’이라는 단원을 추가하면서 비슷한 분량으로 편찬하였기 때문에 통사론 영역이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피동에 대한 논의도 전보다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사동과 피동을 사동표현, 피동표현이라는 용어로 바꾸었고 사동사, 피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통사론(문장론)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사동문, 주동문이나 피동문, 능동문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피동표현의 경우는 (9)의 예문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7)ㄱ.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ㄴ.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7ㄱ)과 같이 주어가 제힘으로 행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능동이라 하고 (7ㄴ)과 같이 주어가 남의 행동에 의하여 행해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피동이라 한다고 하였다. 능동과 이에 대응되는 피동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같다고 설명하였다.

피동문은 주로 파생적 방법으로 실현된다고 하였고 한편 ‘-어지다’도 피동표현을 실현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동표현의 경우는 파생적 피동문이나 통사적 피동문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사동표현을 파생적사동문과 통사적사동문으로 구분한 것과 대조된다.

7차 교육과정 시기의 문법교과서는 6차와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편찬되었으나 사동과 피동의 서술에는 다른 점도 많이 눈에 띈다.

피동표현, 사동표현이라는 용어를 이어 받았으나 6차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능동사 피동사와 같은 용어도 다시 사용하고 있다.

피동표현의 설명은 (10)을 가지고 하고 있다.

(8)ㄱ. 고양이가 쥐를 물었다.

ㄴ. 쥐가 고양이에게 물렸다.

문장은 동작이나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능동문이나 피동문으로 나뉜다고 설명하였다.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이라 하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하여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 하고 (10)에서 ‘물다’는 능동사, ‘물리다’는 피동사라 하였다.

국어에는 피동사가 있는 능동사보다, 없는 능동사가 훨씬 많다고 소개하고 피동문도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피동문의 범위를 6차 교과서보다 확대하여 ‘-게 되다’나 ‘선정되다’같은 ‘되다’도 포함하여 통사적 피동문과 파생적 피동문으로 구분하고 있다.<sup>6)</sup> ‘통사적 피동문이란 용어는 이익섭, 임흥빈(1983)에서는 ‘-이-’ 계를 제외한 나머지를 ‘통사적인 피동구성’이라 하여 사용하였고 권재일(1998)에서는 ‘-어지다’에 사용하였으나 교과서에서 사용한 용어의 내용은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다.<sup>7)</sup>

- (9) 파생적 피동문 : -이-, -히-, -리-, -기-, -되-  
통사적 피동문 : -어지다, -게 되다

이상의 논의한 4차 교과서부터 7차 교과서까지의 피동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대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 6) 이에 따라 ‘되다’의 경우는 ‘선정되다’는 파생적 피동문, ‘-게 되다’는 통사적 피동문으로 나누게 된다. 교과서 p.184의 ‘이것은 저것과 관련된다.’가 진정한 피동문인지는 더 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 이에 대응되는 능동문 ‘이것을 저것과 관련한다.’는 문장은 어색하다. ‘곧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피동문에 대응되는 능동문도 최현배(1937)에서는 분명하지 않다. 서정수(1994)를 비롯한 일부 논문에서는 이에 대응되는 능동문을 ‘곧 사실이 드러난다.’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지 않은 관계로 이에 대응되는 능동문이 아니다. 능동문을 찾는다면 ‘곧 사실을 드러나게 한다.’가 이에 대응되는 능동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권재일(1998)에서는 ‘되다’는 어휘적 피동으로 ‘당하다, 받다’와 같이 처리하였다.
- 7) 안중환(2002:15)에서는 ‘어휘적 피동’과 ‘문법적 피동’으로 구분하였는데 ‘때리다-맞다’ 같은 것이 어휘적 피동이고 ‘-이-’나 ‘-어지다’, ‘선정되다’ 같은 것은 모두 문법적 피동으로 다루고 있어 또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lt;표 2&gt; 국정교과서의 피동

	4-5차 교과서	6차 교과서	7차 교과서	비고
범위	좁음	좁음	보통	
피동사, 능동사	○		○	
피동형				
품사론에서 다룸				
문장론에서 다룸	○	○	○	
피동문의 하위구분			○(파생적, 통사적)	

이 시기는 피동을 공통적으로 통사론에서 다루고 있어 비로소 학교문법에서 피동이 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6차 시기의 교과서에서는 피동사나 능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피동의 범위에서 국정교과서 초기에는 폭을 좁혀서 ‘-이-’와 ‘-어지다’ 정도를 다루었는데 7차 교과서는 앞서와 달리 접미사로 처리되는 ‘-되다’류와 ‘-게 되다’까지 포함하여 다루고 있어 대상 범위를 넓혔으며, 피동문도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으로 세분하여 하위구분하고 있다. 다시 근본적으로는 최현배(1937)의 내용으로 복귀한 셈이다.

#### IV. 피동의 정의와 형식 문제

지금까지 문법교과서에서 다루어진 피동의 정의와 형식 문제는 최현배(1937)의 영향이 크므로 널리 알려진 견해이나 그 피동의 설명 내용을 소개하면 (10)과 같다.

(10)첫째 입음법 : 피동보조어간(도움줄기) ‘-이-’ 등에 의한 피동형.

둘째 입음법 : ‘하다’ 따위 움직씨가 ‘되다, 받다, 당하다’의 보조어간(도움줄기)에 의해 구성되는 피동형.(‘되-, 받-,

당하-'를 보조어간이라 하였다.)

셋째 입음법 : '-어 지다' 류. '지다' 보조동사에 의해.(본동사와 보조동사가 어울려 사용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고 한 씨는 아니라 하였다.)

※피동의 보조동사(도움움직씨)를 별도로 설정 : 지다, 되다

이미 위에서 살폈듯이 3차 교육과정 시기까지는 비록 검인정 교과서라도 대개 최현배(1937)의 견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에서는 다른 점도 있어 피동형이 아닌 피동사로 설명하였음을 위에서 살폈다. 국정교과서 시기의 문법교과서에서 다루어진 피동의 형식을 요약하면 (11)과 같다.

(11) • 4차, 5차 문법교과서

'-이-, -히-, -리-, -기-'에 의한 피동사에 의하여

'-어지다'에 의하여

• 6차 문법교과서

'-이-, -히-, -리-, -기-'에 의한 파생적 방법으로

'-어지다'에 의하여

• 7차 문법교과서

'-이-, -히-, -리-, -기-'에 의하여 파생된 피동사에 의한 파생적 피동문

'-되다'에 의한 파생적 피동문

'-어지다'에 의한 통사적 피동문

'-게 되다'에 의한 통사적 피동문

4-6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에서는 최현배(1937)의 '첫째 입음법'과 '셋째 입음법'이 다루어졌는데 7차 과정에 와서는 '둘째 입음법'까지 확대하였으며 이에 '-게 되다'처럼 '되다'에 의한 구문까지 확대하여 다루었다. 최현배(1937)의 내용에 비하여 피동의 범위가 국정 문법교과서가 마련되면서 축소되었다가 7차 시기에 와서는 다시 되돌아갔다. 내용에서 변화가 커서 '되다, 당하다' 류가 제외되기도 하고 '-게 되다'까지 포함하여 다루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동의 정의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탐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법교과서의 피동의 정의는 위에서 살펴본 단편적이고 충분하지 못하다. 3차 시기의 교과서에서 허웅(1979)에서는 별다른 정의가 없고 나머지 교과서도 능동문과 관련을 지어 설명하고는 있으나 주어가 '동작이나 행동을 입는 존재'임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능동문과의 관련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다. 국정 문법교과서 시기인 4차, 5차 시기의 문법교과서에서는 구체적인 용례에 의하여 능동과 피동을 관련시키고 '정의, 피동문되기, 피동문의 특성'으로 나누어 어느 정도 충실히 설명하고 있다. 7차 시기의 교과서에서는 주어를 중심으로 제힘으로 동작을 하느냐 동작을 당하게 되느냐로 설명하고 있어 의미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의미적인 설명은 그 한계 설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피동은 피동태(被動態)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태(voice)의 일종이다. 태(態)란 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를 의미의 변화 없이 바꾸는 방법을 기술하기 위한 문법 기술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능동과 피동의 관계에서 논의되지만 사동에서도 태가 논의되고 있다. 능동과 피동은 표층에서의 의미 변화가 초점이나 강조 면에서 발생하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같다고 보는 것이다.

피동은 전통문법에서 문법을 설명하던 개념이지만 변형문법에서도 초기에 같은 심층에서 다른 두 개의 표면구조로 변형된 피동변형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강조나 문체의 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능동문과 피동문의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피동의 정의에서는 당연히 주어와 목적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여기에 행동주(agent)나 경험주(recipient)나 목적대상(goal)같은 의미를 고려한 용어나 능동과 피동의 동작의 내용 등이 구명되어야 한다

피동문은 능동문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행동주나 경험주나 목적대상의 개념이 주어, 목적어와 함께 피동문의 정의에 유용하다. 능동문은 주어가 행동주이고 목적어는 경험주나 목적대상이고 피동문은 주어가 경험주나 목적

대상이고 행동주는 주어가 아닌 부사어로 나타난다. 행동주는 능동주라 할 수 있고, 경험주나 목적대상은 피동주라 할 만하다.

(12)ㄱ. 개구리가 파리를 먹었다.

ㄴ. 파리가 개구리에게 먹혔다.

(12ㄱ)의 주어 ‘개구리’는 제 힘으로 스스로 행동하는 행동주, 곧 능동주인 반면에 목적어 ‘파리’는 목적대상(경험주)이다. (12ㄴ)의 주어 ‘파리’는 제힘으로 어떤 일을 하는 행동주가 아니라 남의 어떤 행위에 의하여 당하는 목적대상, 곧 피동주이다. (12ㄱ)은 능동문, (12ㄴ)은 피동문이 되는데 이것은 개괄적으로 같은 동작이나 행위를 주어(주체)를 달리하여 표현한 문장이다. 어떤 행위의 서술을 주어가 목적어에 대하여 주체적인 행동주의 역할을 하는 능동문으로 서술할 수도 있고, 목적대상을 주어로 하여 주어가 남(능동문의 주어)의 행위에 의하여 당하는 경험주(목적대상)로 서술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동일 행위를 서술 주체인 주어를 달리하여 능동과 피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피동의 통사적, 의미적인 기준을 제시한 정의라 할 수 있다. 서술 주체를 달리하여 능동문의 목적어를 주어로 하여 남의 행위에 의하여 당하는 문장으로 표현하면 피동이 되는 것이다. 능동문은 주어가 행동주이고 목적어는 경험주나 목적대상이고 피동문은 주어가 경험주나 목적대상이고 행동주는 주어가 아닌 부사어로 나타난다.

‘주어가 주체적인 행동주’가 되면 능동이고 ‘주어가 남의 행위에 의하여 당하는 경험주나 목적대상’이 되면 피동이라는 설명과 능동문과 피동문이 대체적으로 동의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의미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통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이-’ 계통의 피동을 포함하여 (13)-(16)도 피동에 해당된다. 가장 넓은 피동의 정의로 볼 수 있다. (13)-(16)이 모두 위에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은 (13)에서부터 시작하기

로 한다.

- (13)ㄱ. 영이가 철수를 때렸다.  
       ㄴ. 철수가 영이에게 맞았다.
- (14)ㄱ. 엄마가 아이를 밥을 먹게 하였다.  
       ㄴ. 아이가 엄마에 의해 밥을 먹게 되었다.
- (15)ㄱ. 담임이 영이를 대표로 선정하였다.  
       ㄴ. 영이가 담임에 의해 대표로 선정되었다.
- (16)ㄱ. 철수가 문패를 떼었다.  
       ㄴ. 문패가 철수에 의해 떼어졌다.

(13)의 ‘때리다-맞다’ 관계는 (13ㄱㄴ)의 통사적인 관계나 (13ㄴ)의 주어가 남의 행위에 의하여 당하는 문장으로 바뀐 의미적인 관계에 의하여 ‘능동-피동’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동일 행위를 태를 달리하여 표현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 피동이 ‘먹다-먹히다’처럼 피동사라는 별개의 단어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분은 더욱 모호하여진다. 초기의 대한문전 같은 데에서는 ‘맞다’ 같은 동사도 피동사로 보았으나 최현배(1937)에서는 ‘때리다-맞다’ 같은 관계를 피동에서 일단 제외하였다. 이 두 구문의 동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진리조건이 같은지를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하다.

- (17)ㄱ. 영이가 꽃을 꺾었다.  
       ㄴ. 꽃이 영이에게 꺾이었다.

(17ㄱ)이 참이면 (17ㄴ)도 참이 된다. 그러나 (13ㄱ)이 참이라고 (13ㄴ)의 ‘맞다’ 구문이 참이 되지는 않는다. ‘영이가 철수를 때렸지만 철수는 맞지 않았다.’라는 문장은 모순 없이 자연스러운데 이것은 (13ㄱ)이 참이라고 하여 (13ㄴ)이 늘 참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sup>8)</sup> (13ㄱ)이 참이더라도 (13ㄴ)은 거짓이 될 수 있다. 또 ‘때리다’ 구문을 ‘맞다’ 구문의 능동문으로 본다면 ‘맞다’



에 대응되는 능동사가 ‘치다, 때리다, 패다’ 등등이 상정되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구성되는 구문을 모두 ‘맞다’에 대응되는 능동문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전의 어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13)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능동-피동의 관계로 표현한 구문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13)을 피동에서 제외한다면 자동적으로 (14)의 ‘-게 되다’도 제외된다. (14)의 ‘하다’와 ‘되다’를 보조용언으로 처리하는 주장도 있으나 이 동사는 분명히 별도의 주어와 가지므로 보조용언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이다.<sup>9)</sup> 그렇다면 ‘하다-되다’에 의해 구성되는 구문의 관계도 ‘때리다-맞다’의 관계와 같이 별도의 단어의 관계에 의하여 표현된 구성이다. (14ㄱ)이 참이라고 해서 (14ㄴ)이 참이 되지 않는다. 먹게 하여(시키어)도 말을 듣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14)의 두 문장은 진리조건이 같지 않다.

(15)의 ‘선정하다-선정되다’는 이 구성을 ‘선정을 하다-선정이 되다’처럼 해석하면 역시 용언은 ‘하다-되다’의 어휘적인 관계가 되어 이 두 구문은 진리조건이 같지 않고 피동의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선정을 하였지만(시도하였지만) 선정은 되지 않았다.’가 ‘하다’를 ‘시도하다’ 같은 동사의 대동사로 보면 가능하다. 이것은 (15ㄱ)이 참이라도 (15ㄴ)이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5)의 ‘선정하다-선정되다’를 합성어나, 파생어로 처리하여 한 단어로 본다면 진리조건이 같아지는 듯하다.

‘-어지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법을 적용하여 살필 수 있다. (16ㄱ)이 참이면 (16ㄴ)도 참이 된다. (16ㄱ)이 참이면서 (16ㄴ)이 거짓인 경우는 없는

8) 논문 심사 과정에서 ‘영이가 철수를 때렸지만 철수는 맞지 않았다.’는 문장은 모순이 되는 문장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물론 모순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는 ‘헛발길질’도 가능하므로 모순 없이 통합되는 경우가 있다.

9) (1)에서 ‘하다, 되다’는 별도의 주어와 있는 동사로 간주된다.

(1)ㄱ. 영이는 철수가 가게 하였다.

ㄴ. 서울은 건물이 많아지게 되었다.

서정수(1994)에서도 ‘되다’를 본용언으로 다룬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듯하다. 따라서 (16)의 두 문장은 대체로 진리조건이 같은 문장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것도 피동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나 (16)의 (ㄱ), (ㄴ)이 근본적으로 동의인지에 대한 논란은 많아서 서정수(1994)에서는 이를 ‘피동성 표현’이라 하여 ‘진피동’과 구분하고 있다.

위에서 능동 피동의 관계에 있는 용언의 공통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때리다-맞다’, ‘하다-되다’는 제외되고 ‘꺾다-꺾이다’, ‘선정하다-선정되다’ 등은 포함된다. ‘때다-때어지다’도 포함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능동과 피동을 구성하는 용언의 형태적인 기준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 하나로 어기(語基)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sup>10)</sup> ‘먹다-먹히다’는 어기를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용언이지만 ‘때리다-맞다’는 비록 의미적으로 능동-피동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지만 어기를 공유하지 않으므로 피동의 논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어지다’의 경우는 현행 학교문법에서는 ‘지다’를 보조용언으로 처리하여 통사적인 피동이라 하였다. 그러면 어기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먹어 보다, 가고 싶다’ 등에 보이는 ‘보다, 싶다’ 보조용언은 ‘그래 보다, 그러고 싶다’처럼 선행 용언의 대용화가 가능하지만 ‘고쳐지다’는 \*‘그래지다’가 불가능하므로 하나의 단어로 처리할 수도 있을 듯하다. 이석주(1989:77ff)에서는 사전에 단어로 등재된 ‘나빠지다, 커지다’ 등을 예로 들어 ‘-어+보조동사’ 구조를 복합어로 처리하고 있고 이웅백, 안병희(1979)에서는 ‘새겨지다’를 합성어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능동, 피동의 관계에 있는 두 용언의 형태적인 공통점은 어기를 공유한다는 점이다. 피동은 피동사에 의하여 구성되며 그것은 능동사와 어기를 공유한다.

이러한 정의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동작이나 행위를 태를 달리하여 표현하는 능동과 피동의 관계를 형태적인 기준으로 판별하려 한 것이다. 통사적, 의미적인 기준 이외에 이러한 형태적인 기준을 추가하여 능동, 피동의 관계를 구명하려 한 것이다.

10) 이곳에서는 ‘어기’의 개념을 이익섭, 채완(2001)의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어기를 자립어기와 의존어기로 나누고 의존어기에 어근과 어간을 포함시키는 개념이다.

이러한 기준 이외에 추가로 생각할 수 있는 기준으로 피동에 관여하는 요소들의 문법적 기능을 들 수 있다. 피동에 관여하는 피동접미사 ‘-이-’ 등은 단일한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되다, 받다, 당하다, -어지다’ 등은 피동을 만드는 기능만을 담당하지는 않고 있다.

‘되다, 받다, 당하다’ 등은 각각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용언이고 ‘받다, 당하다’는 타동사이다. 이것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제한된 ‘하다’에 대응되는 구문에서는 피동에 관여하는 문법적인 요소로 파악되기도 한다. ‘-어지다’는 자동사, 형용사, 타동사 뒤에 두루 통합되면서 흡사한 의미를 가진다. 동아 새국어사전에서는 ‘-어 지다’를 보조동사로 ‘사물의 상태나 동작이 그렇게 되어 가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냄’으로 한 항목에서 풀이하고 있다.

(18ㄱ). 잡겨지다, 되어지다

ㄴ. 예뻐지다, 슬퍼지다, 아름다워지다

ㄷ. 끊겨지다, 찢겨지다, 접혀지다, 썩여지다, 묶여지다

(18ㄱㄷ)은 자동사에 통합된 것이고 (18ㄴ)은 형용사에 통합된 것으로 피동구성과는 관련이 없다. 특히 (18ㄷ)처럼 피동사인 자동사에 통합되는 구문이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진정한 피동을 나타내는 요소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이것은 결코 비문법적인 구문을 구성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능동과 피동이 일대 일로 대응되느냐는 문제이다. 능동과 피동이 문법적으로 설명되려면 하나의 능동문에 하나의 피동문이 대응되어야 한다. 위에서 ‘때리다-맞다’를 피동에서 제외한 것도 ‘맞다’에 대응되는 능동문이 ‘치다, 때리다, 패다’ 등의 동사에 의하여 각각 구성될 수 있는 것도 한 원인이었다.

‘되다, 당하다, 받다’도 합성어나 파생어로 처리하여 피동으로 다루더라도 일대 일의 대응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된다.

- (19) ㄱ. 지배되다 - 지배당하다 - 지배받다  
 선택되다 - 선택당하다 - 선택받다  
 ㄴ. 중지되다 - 중지당하다  
 금지되다 - 금지당하다  
 ㄷ. 결정되다 - 결정받다  
 수리되다 - 수리받다  
 ㄹ. 소박당하다 - 소박받다  
 박대당하다 - 박대받다

(19ㄱ)은 ‘지배하다, 선택하다’의 피동문으로 세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의미가 다르다. ‘지배당하다’는 ‘지배되다’에 비하여 훨씬 의미가 강하고 ‘받다’는 ‘되다’와 ‘당하다’의 중간 정도의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선택당하다’도 마찬가지이다. 이 ‘되다, 당하다, 받다’는 어휘적인 의미가 강하여 서로 의미가 구별되면서 중복될 수 있다. 이러한 어휘는 매우 흔하여 ‘비교하다, 부정하다, 요구하다, 연락하다’ 등등이 있다. (19 ㄴ)이나 (19ㄷ), (19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을 각각 ‘중지하다, 금지하다’, ‘결정하다, 수리하다’, ‘소박하다, 박대하다’의 피동문을 구성할 수 있는 용언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합성어나 파생어로 보아 형태적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피동문에서 의미 차이가 나므로 능동문과 피동문으로 단순히 설명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그러면 이 현상은 사전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국정문법교과서의 피동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 (20) • 4차, 5차 : 피동사가 남의 행동을 입어서 행해지는 동작을 나타낸다면 능동사는 제힘으로 행하는 동작을 나타낸다. ‘-어지다’에 의한 형성법도 있는데 어미 ‘-어’에 보조동사 ‘지다’가 연결된 것이다.
- 6차 : 주어가 제힘으로 행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능동이라 하고 주어가 남의 행동에 의하여 행해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피동이라 한다. 능동과 이에 대응되는 피동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같지만 말하는 상황에 따라 능동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피동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흔히 능동의 대상을 더 부각시키고자 할 때에는 피동문으로 표현한다.

- 7차 :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 한다.

정의를 기술한 부분만 살핀다면 국정 문법교과서의 피동의 정의는 주로 의미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에서는 주어가 된다는 통사적인 기준이 명확히 기술되지 않아 피동이 본래 왜 논의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게 하고 대응되는 능동문을 잘못 파악하게 하기도 한다. ‘영이가 연설을 하게 된다.’의 능동문을 ‘영이가 연설을 한다.’와 같이 파악하는 것은 통사적인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6차의 정의는 능동과 피동의 근본적인 동의성을 언급하며 상황에 따른 초점 문제를 밝혀 국어교육에서의 피동의 적용 문제를 부각한 점이 특징이다. 6차 교과서의 정의는 엄밀히 말하면 의미적, 통사적 정의로 볼 수 있다. (‘대상’은 목적어이므로)

이렇게 의미적, 통사적인 기준으로 피동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게 되면 7차 교과서처럼 피동문의 유형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정의가 정밀화되어야 피동의 유형이 축소된다.

발화 상황에 따라 태를 달리하는 표현이 말하기 교육이나 작문 교육 같은 국어 교육에 매우 유용하지만 어휘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법 현상으로서의 피동의 기술은 그 나름대로 정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론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피동의 논의는 피동의 명확한 개념 정의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피동은 피

동태(被動態)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태(voice)의 일종이다. 태(態)란 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를 의미의 변화 없이 바꾸는 방법을 기술하기 위한 문법 기술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능동과 피동의 관계에서 논의되지만 사동에서도 태가 논의된다. 능동과 피동은 표층에서의 의미 변화가 초점이나 강조 면에서 발생하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같다고 보는 것이다.

검인정 문법교과서에서는 주로 품사론에서 다루어지던 피동이 국정 문법 교과서에서는 통사론 영역에 ‘문법요소의 기능과 의미’로 자리 잡아 체계화되었다.

검인정 문법교과서는 최현배(1937)에서 제시한 피동의 내용이 주축이 되었었는데 국정 문법교과서에서는 초기에 ‘-이-, -히-, 리-, -기-’ 접미사가 통합된 피동사에 의한 피동, 그리고 ‘-어지다’ 구문에 의한 피동으로 국한하였다가 7차 문법교과서에서 폭이 넓혀졌다.

7차 교과서의 피동에서는 ‘-게 되다, -당하다, -되다, -받다’ 등도 피동문의 구성에 포함시키고 있다.

피동의 정의나 내용에서 유념하여야 할 사항은 반드시 피동문은 능동문과 관련하여 정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능동문과 피동문이 근본적으로 의미가 같아야 한다는 것과 주어가 동작을 체험으로 하느냐 다른 주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동작을 당하느냐는 것은 피동을 포괄적인 의미적인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이다.

또 피동문은 능동문의 목적어를 주어로 하여 동일 행위를 서술 주체인 주어를 달리하여(관점을 달리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타동사문인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에서 주어로 실현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통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통사적인 정의가 무시 되면 주어가 같은 능동문과 피동문을 대응시키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경찰이 도둑을 잡는다. - 경찰이 도둑을 잡게 된다.’는 문장은 의미적인 기준으로는 능동, 피동의 문장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나 통사적인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 이외에 근본적으로 의미가 같으면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능동사와 피동사의 관계를 파악하는

형태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또 정밀한 피동의 기술을 위해서는 피동을 나타내는 문법요소의 문법 기능이 단일하게 피동만을 나타내야 한다든지 능동과 피동이 일대 일의 대응에 있어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살펴야 할 것이다.

피동에 대한 정밀한 논의가 더 이루어져 국정 문법교과서에 걸맞게 체계적인 피동의 내용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교육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피동을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할지도 더 검토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권재일(1998), 『한국어 문법사』, 박이정.
- 김민수(1987), 『국어학사의 기본 이해』, 집문당.
- 남기심, 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민현식(1999), 『국어교육을 위한 응용언어학 연구』, 서울대출판부.
- 민현식(2000), 『국어문법 연구』, 역락.
- 박영목(1977), 『국어 사동사와 피동사의 의미구조』,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희임(1986), 『국어 피동 연구』,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정수(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 안중환(2002), 『능동구조의 한국어와 피동구조의 일본어』, 제이 앤 씨.
- 왕문용(1997), 「대등접속문은 국어에 과연 있는가」, 『어문학보(강원대)』 20.
- 왕문용, 민현식(1993), 『국어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 우인혜(1997), 『우리말 피동 연구』, 한국문화사.
- 유길준(1909), 『대한문전』, 용문관(역대문법사대계 1-06)
- 이관규(1999), 『학교문법론』, 월인.
- 이관규(2005), 『국어교육을 위한 국어문법론』, 집문당.
- 이길록(1983), 『국어문법 연구』, 일신사.
- 이상억(1972), 「국어의 사동, 피동 구문 연구」, 『국어연구(서울대)』 26.
- 이석주(1989), 『국어형태론』, 한샘.
- 이익섭, 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익섭, 채완(2001),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 임홍빈(1978), 「피동성과 피동구문」, 『국민대학논문집』 12.
- 정준섭(1994), 「국어과 교육과정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경원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현배(1937), 『우리 말본』,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이 논문은 2006. 1. 4에 투고 접수된 논문으로 2006.2.2에 심사를 완료하고 2006.2.13에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됨.



## &lt;초록&gt;

## 국정 문법교과서의 피동법 기술에 대한 고찰

이 논문에서는 국정 문법교과서 시기인 4차-7차 교육과정 시기의 문법교과서에서 피동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고찰하였다. 그 배경을 고찰하기 위하여 3차 교육과정 시기의 김인정 교과서의 여러 견해를 고찰하였다.

피동의 논의는 피동의 명확한 개념 정의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피동은 피동태(被動態)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태(voice)의 일종이다. 태(態)란 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를 의미의 변화 없이 바꾸는 방법을 기술하기 위한 문법 기술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능동과 피동은 표층에서의 의미 변화가 초점이나 강조 면에서 발생하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같다고 본다.

김인정 문법교과서에서는 주로 품사론에서 다루어지던 피동이 국정 문법교과서에서는 통사론 영역에 ‘문법요소의 기능과 의미’로 자리 잡아 체계화되었다. 김인정 문법교과서는 피동의 내용이 복잡하였는데 국정 문법교과서에서는 초기에 ‘-이-, -히-, 리-, -기-’ 접미사가 통합된 피동사에 의한 피동, 그리고 ‘-어지다’ 구문에 의한 피동으로 국한하였다가 7차 문법교과서에서 포괄적인 의미적인 기준을 충실히 적용하여 ‘-게 되다, -당하다, -되다, -받다’ 등도 피동문의 구성에 추가 시켜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을 구분하고 있다.

피동의 정확한 기술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생각할 수 있다. 능동문과 피동문 사이의 근본적인 동의 문제, 능동이란 용어와 그에 대조되는 피동이란 용어의 의미는 의미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이외에 타동사문인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실현되는 통사적인 기준, 능동사와 피동사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형태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 정밀한 기술을 위해서는 피동을 나타내는 문법요소의 문법 기능이나 일대 일의 대응 관계도 살펴야 한다.

<주제어> 한국어의 피동, 피동의 유형, 피동문과 능동문의 관계, 학교문법

<Abstract>

A Study on Passive of Korean School Grammar

Wang, Moon-Yong

Passive is widely used in grammar to refer to a subtype of voice concerned with the relation of subject and object and the action expressed by the verb. It is opposed to the active.

In traditional school grammar, there are three types of passive sentence.

Type 1: Passive of derivational affixes ‘-이-, -히-, -리-, -기-’.

Type 2: Passive of derivational affixes(or words) ‘-되다, -당하다, -받다’.

Type 3: Passive of auxiliary verbs ‘지다, 되다’.

After integration of school grammar, the types of passive sentence in the textbooks are changed. Type 1 and type 3 are selected in the school grammar textbook of 4th-6th korean curriculum and type 1,2,3 are selected in the 7th korean curriculum. There is obviously a clos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active and passive sentence they appear to have same propositional meaning, to be paraphrases of each other. They have same truth con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type 2 and type 3 construction is closely related to other types of construction, and a boundary line is sometimes difficult to establish. They are questionable real passive voice in korean.

<Key words> passive voice in korean, types of passive sentence, relationship between active and passive sentence, school grammar